

머드박람회 '대박'...해양신산업 중심지 급부상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서 개최
관람객 60만 명 돌파...방역 철저

주제관, 체험관 등 7개 전시관
갯벌생물 큐브 전시, 머드체험
국내외 기업 신산업 정보 공유

기업설명회, 국제학술행사 진행
해양머드웰니스컨퍼런스 열려
머드산업 발전방안·사례 논의

#머드박람회를 찾은 서지민(11) 군은
"부모님과 함께 왔다. 머드를 직접 바
르고 체험할 수 있어 재밌고, 바닷속
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다"고 말했다.
#김소현(43) 씨는 "오전 일찍 예약을
통해 머드 마사지를 받았다.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머드 마사지를 받으니 피
부가 맑아지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국제행사인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관람객
60만 명을 넘기면서 대박을 예고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머드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 철저한 방역 등 안전
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쓴다.

충남도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
위원회에 따르면 8월 2일 기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총 관람객은 유
료 21만 8500여 명, 무료 38만 8500여
명 등 60만 7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머드박람회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
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일원에
서 열린다.

산업형 박람회와 축제가 결합된 국
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박람회인 머드
박람회는 주제, 산업, 체험 등 3가지
테마로 나뉘, 머드 효능과 우수성을
알려 해양머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해
양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 획
심이다.

박람회장은 해양머드 주제관, 해양
머드·신산업관, 해양머드 웰니스관(치
유의 숲), 해양레저&관광관, 해양머드
체험관, 특산물 홍보관, 해양머드 영상
관 등 7개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해양머드 주제관에서는 미디어 큐
브를 통해 갯벌 서식 생물(56종) 정
보를 확인하고, 살아있는 갯벌 생물도
만나볼 수 있다.

해양머드·신산업관에서는 해양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이 생산
중인 머드베드, 머드화장품 등 제품을
소개한다. 국내외 80여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해양머드 웰니스관에서는 머드를
이용한 테라피 등 각종 머드 치유 프
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해양머드
영상관에서는 대형 미디어 파사드(외
벽 영상)를 이용한 고래 등 해양생물
들과 바닷속을 여행하는 기분을 만끽
할 수 있다. 특히 영상관의 고래가 인
기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덕분
에 고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아울러 공공 전시, 비즈니스 전시,
기업설명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학술
대회 등 행사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관람객이 안전하게 머드
박람회와 머드축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도와 박람회조직위, 감염병관
리지원단, 보령시가 합동으로, 코로나
19 재유행 우려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 ▲의료 ▲응급
3개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다.

<관련 2, 3, 9면>
/김정원 jwkim87@korea.kr



보령국제요트대회 성료
충남 보령 앞바다를 수놓았던 '2022아시아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7월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 세계 17개국 선수가 참가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74

道·대기업 8곳, 민관 상생 발전 맞손

제1차 경제상황 점검회의 개최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수소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

충남도가 도내 주력산업 대기업과 민
관 협력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충남도와 롯데케미칼·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기업 임원은 7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충청남도 기업 민관 협력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업은 롯데케미칼, 삼성 디스플레이, 엘지(LG)화학, 에스케이 에코플랜트(SK ecoplant), 한화토탈

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8곳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각 기업은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가 역동적인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주력산업 확장 등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적 지원에 나서며, 대기업은 도내 주력산업 성장 기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관계망 구축,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민관 협력 모형 발굴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축도 추진한다.

1부 협약식 이후 이어진 2부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선 보고, 발제, 종합

토론 등을 진행했다.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현안 점검 내용을 보고했으며, 장철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윤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각각 민선 8기 도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방 센터장은 ▲지역 성장 잠재력 향상과 산업 전환·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완화를 위한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수요 기반 인제 육성 정책 수립 ▲권역별 불균형 완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권역별 균형 발전, 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도는 이날 공유한 주요 경제 현안과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한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8

충남 3색 대잔치

충남으로 놀러오세요!

<p>보령해양머드박람회</p> <p>7.16.(토) ~ 8.15.(월)</p> <p>충남보령시 신축동2282 대천해수욕장 인근</p>	<p>백제문화제</p> <p>10.1.(토) ~ 10.10.(월)</p> <p>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 부여군 구드래 일원</p>	<p>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p> <p>10.7.(금) ~ 10.23.(일)</p> <p>계룡대 활주로 일원</p>
---	---	--

“220만 도민과의 약속” 공약 이행 속도 높인다

확대간부회의서 도정 과제 논의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단 운영 중앙부처 협의 국비 확보 '집중'

충남도정 핵심 과제 실행 로드맵이 나왔다.

도는 100일 중점 과제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힘쓴다.

도는 7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도정 핵심 과제는 공약 130개, 역점 과제 66개, 기타 현안 41개 등 총 237개다.

이 중 연내 추진할 단기 과제에 대해서는 2회 추경 확보 등 추진 기반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및 내년 정부예산 확보 등 중앙부처 대응에 힘을 모은다.

중장기 전략 사업은 법령 개정이나 국가 계획 반영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주요 핵심 과제별 실행 방안을 보면, 민선8기 1호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특별팀(TF) 구성에 이어 내달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경기도와 협력 사업을 추진고 업무협약을 맺은 뒤, 내년 기본계획을 공동 수립하며, 국가계획 반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경영 효율화는 8월 초까지 연구용역 추진 기관을 선정해 연내 용역과 실행계획 수립까지 마칠 계획이다.

지역 소득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민선8기 100일 중점 과제로 꼽은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은 단기적으로 ▲민간전문가 중심 특별팀 및 추진위 신설 ▲투자자 확보 방안 강구 ▲사업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점을 감안해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며, 출자자 모집과 법인 설립 등 금융위원회 은행 설립 인가를 준비

한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는 연내 선포를 마무리하고, 내년 세부 전략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충남 이전은 범도민추진위원회 구성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남부 지역 민원 행정 서비스 불편을 덜고, 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충남 남부출장소는 오는 10월 지원센터를 먼저 가동한 뒤, 내년 1월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기회 제공을 위한 리브투게더는 이달 내에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민선8기 내에 5000호를 건립한다.

2030년까지 1조 78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할 계획인 한국판 골드코스트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특별팀 및 민관 합동 추진단 발족 등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은 9월까지 민관 MOU를 맺고, 내년 정부 예산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도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2



“충남 농업의 미래, 우리 손에” 충남도와 한국여성농업인 충남도연합회는 7월 26일 보령종합체육관에서 ‘제10회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대회’를 개최하고,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여성 농업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여성농업인 표창, 시군별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화합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농업정책과 041-635-4014

충남자치경찰 청년서포터즈 모집

19~39세 도민 대상 22일까지 접수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22일까지 제2기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제2기 청년 서포터즈는 도민 참여형 자치경찰제 운영과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 및 자치경찰과 도민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도에 거주하면서 자치경찰제 및 범죄예방 등 정책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및 일반인의 청년층이며, 모집인원은 50~60여 명이다.

경찰 관련 대학(학과) 재학 또는 활동 경험이 있거나 사회관계망(SNS) 운영 및 기자단 활동 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

신청은 도 및 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참고해 네이버 폼(naver form)에서 하면 된다.

제2기 충남자치경찰청년서포터즈는 9월 9일부터 2년간 활동 예정이며, 개인별 활동 증명서 발급과 경찰기관 견학 및 현장경찰관과의 소통의 장 마련, 봉사활동 시간 부여,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 혜택도 마련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895

공공요금 동결 민생 안정 ‘총력’

도 지방 물가 안정 대책회의

충남도가 지방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도는 7월 27일 도와 시군 관계 공무

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 방식으로 ‘지방 물가 안정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과 직결되는 상수도료, 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버스요금, 택시요금, 쓰레기봉투료 6종의 공공요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도와 시군은 민생 안정화를 위해 ▲물가 관리 추진 체계 강화 ▲지방 공공·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 관리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자·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7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산림휴양시설에 숲해설가 배치

충남도는 도내 산림휴양 시설 등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산림휴양·교육·치유 시설에 41

명의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했다.

이들은 도내 산림휴양시설 18곳과 교육시설 17곳 등 35곳에서 방문객들에게 산림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체험활동 등을 도우며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숲해설가는 휴양림, 수목원, 도시 숲 등에서 나무나 식물에 관한 생태적 지

식을 공유하고, 유아숲해설가는 숲에서 교육, 놀이, 상담, 보호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유아의 정서적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신청은 해당 시군(산림부서) 및 도 산림자원연구소로 하면 된다.

/산림자원과 041-635-2575

어르신 무더위 쉼터 현장 점검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목적

충남도가 무더위로 인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더위 쉼터 등 각종 시설을 살피고 도내 여름철 재해위험지구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오는 12일까지 도내 재난안전

취약지역 및 재난 예·경보 시설 등을 찾아 ‘여름철 자연재난 예방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현장 점검 기간 홍성(저수지·임시주거시설), 예산·천안·금산 등을 찾아 점검한다.

/자연재난과 041-635-3254

머드박람회장 특별 방역대책 추진

도, 코로나 방역·의료 대응 강화 윈스토펙시기관 확대, 병상 확보

충남도는 8월 중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최대 28만여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2022 보령머드해양박람회장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의료 대응을 강화했다.

도는 코로나19 재유행 및 감염 확산으로부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강화된 방역·의료 대책을 추진한다.

방역 분야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강화를 위해 접촉 면회, 필수 외래진료 외의 외출 등을 제한한다.

홍보영상 방역 등 방역수칙 준수 홍보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진단 검사 수요 증가 시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는 윈스토펙시기관을 232개에서 354개로 확대하고, 병상도 78개에서 130개까지 확보한다.

투석·분만·소아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도 85개를 가동하며, 병상 배정 등 대응인력은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원할 예정이다.

시군별 의료기동전담반은 정신요양시설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비롯해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도 추진 중이다.

국제행사인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현재 도와 박람회조직위, 감염병관리지원단, 보령시가 합동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 ▲의료 ▲응급 3개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다.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는 물론 각 전시관 입구에 비대면 발열 체크기를 설치했으며, 유증상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박람회장은 전문소독업체가 주기적 전면 소독을 실시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관람객들이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현장 관리직원을 배치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점검 강화 및 실내 음료 취식 자제를 권고하는 근무조도 활동 중이다.

실내 전시관은 4m²당 1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 확보와 직원 대상 주2회 코로나19 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집중과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라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83



해양웰니스컨퍼런스 개최...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7월 27~28일 특강, 주제발표
국내외 해양웰니스 산업정책
머드산업 발전방안 등 논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주최하고 보령해
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한 해
양신산업과 머드산업의 미래를 여는
'2022해양웰니스컨퍼런스'가 7월 27-28
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머드박람회 일환으
로, 국내 머드 및 해양 신산업의 새로
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해양웰니스의
다양한 미래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마
련됐다.

행사에는 세로토닌 문화원 이시형 원
장, (주)아놀자 김중훈 대표, GWI(글로벌

웰니스협회) 찰스 데이비스, 국제 와
덴해 스킨케어 스텝체신스키, 경희대
학교 윌리엄 캐논 헌터 교수 등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7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외
해양웰니스 산업 정책 및 사례를 발표
하고, 머드산업의 현재와 미래 세션이
진행됐다. 28일에는 지속가능한 해양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담화 세션으
로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 발표한 국내외 해양웰니스 산
업 정책 및 사례에서는 '해양 웰니스
관광'이라는 주제로 해양치유산업의
국내외 정책 동향, 호주의 대표적인
해수온천욕의 선진사례, 웰니스 관광
객의 경험을 토대로 한 성공적인 웰니
스 관광지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머드산업의 현재와 미래 패넬토론
에서는 보령을 중심으로 한 머드산업
의 현위치를 조명하고 웰니스 관광과



'해양머드웰니스컨퍼런스'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맹철영

의 연계방안, 보령 머드의 우수성, 머
드산업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머드축
제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미래가치를
모색했다.

이어 28일 세션에서는 자연과 공존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발
전시키기 위해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

갯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사례를
바탕으로 서해안 갯벌의 우수함과 접
목사례와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사례
를 논의했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머드
의 신산업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관

련 산업을 전시해서 머드의 가치를 재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서해안권 최초
해양 관련 국제행사로, 7월 16일부터 8
월 15일까지 대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열린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041-930-2824

“머드박람회에서 업사이클링 체험하세요”

8~14일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페플라스틱으로 장난감 제작

충남도는 8월 8일부터 14일까지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생활 속 쓰레기
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
링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은 도와
충남사회혁신센터가 진행하는 총격실
험실 일환으로, 페플라스틱과 페스티
로폼을 소재로 풍경, 화분, 장난감 등
을 제작한다.

박람회 이후에는 15개 시군을 방문
해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
정이다.

수업은 일회용컵을 녹여서 팔사(마
사지)를 만들거나, 페플라스틱을 사
출한 비즈팔찌, 아크릴을 활용한 썬캐
쳐나 키링 만들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광객들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장에서 업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업사이클링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사회혁신 누리집
(www.cnkc.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 어려운 자원

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 있는
물품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환경에 대
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3

해양 머드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머드산업육성위원회 회의 개최
“머드박람회 머드산업 육성 계기”

충남도는 7월 27일 보령머드테마파크
컨벤션동에서 열린 '2022 보령 머드
산업육성위원회 정례회'에서 보령
시 머드산업육성위원회와 머드산업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장태수 단국
대 교수가 '보령 해양머드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장 교수는 특강을 통해 보령머드
제품 및 서비스의 융복합화, 머드산
업 활성화 지원 기반 구축, 치유 프
로그램 개발·활용, 웰니스 관광 연계

머드산업 발전 방향 등을 제언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강 내용을 바탕
으로 머드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도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계기
로 머드를 핵심 주제로 한 산업 모델
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기능성 다
변화를 통한 머드 소재 산업 확장 ▲
머드 기반 해양치유산업 육성 ▲머
드 콘텐츠 개발 등 머드축제 고도화
이며, 이를 통해 머드 기반 시장을
다각화하고 지역 선도기업 육성체계
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68

“머드마사지부터 베이커리 체험까지”

머드박람회 체험관 '인기몰이'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코디네이션학과 체험부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찾는 관
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
남도립대학교 체험부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 뷰티
코디네이션학과는 머드박람회 기간인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충남도립대는 머드박람회 7개 전시관

중 체험관에 체험&홍보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해양웰니스 머
드마사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머드박람회 현장에서 얼굴, 팔, 다리
등 머드마사지를 직접 받고, 효과를
느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호텔조리제빵학과가 마련한 먹거리
체험도 인기다.

호텔조리제빵학과는 충남 수산물인
오징어 먹물을 활용한 머핀과 감태 마
들렌 등을 선보이고 있다.

체험객들은 베이커리 위에 다양한
장식을 하고, 직접 포장해 시식할 수



베이커리 체험을 하고 있다.

있다.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체험과 먹
거리를, 어른들에게는 충남 수산물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어 호응이 높다.

베이커리 체험객 김윤성 씨는 “오징
어 먹물을 활용해 머핀을 만들었는데,
맛도 좋고 모양도 예쁘다”며 “상품화
하면 구입할 것 같다”라고 했다.

/충남도립대 041-635-6610

충남 앞바다 가르스 요트들의 행진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폐막
뉴질랜드 등 종목별 우승팀 시상

전 세계 17개국 선수가 참가해 3일간
충남 보령 앞바다를 누볐던 아시안
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J70(일반부) 종목
에서 뉴질랜드 팀이 우승을 차지해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고 2위 태
국 팀, 3위 말레이시아 팀이 뒤를 이
었다.

오픈미스트(유소년부 개인전) 종목

에서는 12세 이하에서 남자부 차이한
레이(싱가포르), 여자부 미카엘라(싱가
포르)가 우승했고, 13~15세에서 남자
부 찬나팁(태국), 여자부 니콜(싱가포
르)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각국 선수단은 대회 기간 중
한국 전통시장인 보령 중앙시장 방문,
해양머드박람회장 및 머드 체험 등 색
다른 즐거움도 만끽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74



식품기업 ‘대상’, 아산 인주산단에 대규모 투자

도·아산·대상 투자 협약 체결
아산에 공장·물류창고 등 신설
신규일자리 2000개 창출 전망

충남도가 국내 굴지의 식품 종합기업 대상과 대규모 투자협약을 맺으며 민

선 8기 투자유치의 포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7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상, 아산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상은 단계적으로 아산 인주산업단지(3공구) 내 25만 9023㎡의 부지에 기존 사업 확장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추진한다.

1200억 원의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현대화된 식품 제조기지과 물류 및 생산 자동화 기반을 신설할 예정이며, 앞으로 신규 사업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상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적 책임 이행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아산시 내 생산액 변화 1조 997억 원, 부가가치 변화 1687억 원, 신규 고용 창출은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도 생산 유발 1조 2599억 원, 부가가치

유발 4574억 원, 고용 유발 583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상은 1956년 설립된 식품 종합기업으로 국내 11개 생산 거점과 해외 17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주 생산품은 조미료류, 장류, 편의식품, 신선식품 등이다.
/투자입지과 041-635-3388

자영업자 전국 5위...“업종별 지원정책 필요”

충남연구원, 자영업자 현황 발표
휴업 가맹점수 1만 5749곳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충남지역 자영업자 휴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 인포그래픽(KCB 신용정보 및 BC카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도내 휴업 가맹점수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8799개에서 올해 4월 1만 5749개로 증가했다.
이는 78.9%나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폐업 가맹점수는 1773개에서 787개로 줄었다.

휴업과 폐업 가맹점의 상위 3개 분야를 살펴보면 휴업은 여행업, 주점, 광학제품 순이었고, 폐업은 광학제품, 서적·문구, 건축·자재 순이었다.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임병철·김혜정 전임연구원은 “충남지역 자영업자는 전국 15개 광역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연령별 평균소득 증가율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18~29세의 청년 자영업자를 보면, 코로나19 이전(2018년도 1분기)에는 충남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2.6%였고, 전국 평균 1.6%보다 1%p 높았으나, 올해 1분기에는 충남이 0.2%로 전

국 평균 2.6%보다 오히려 2.4%p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초기보다 대출 잔액 증가세가 일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카드론이나 소액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상환의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출 상환 연장 여부를 떠나 자영업자의 소득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기성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경기회복 속도, 소비트렌드 변화,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연구원 041-635-0241

“ICT 분야 알기 쉽게 배워요”

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미니포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까지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ICT산업 활성화 및 동향 공유를 위한 미니 콜로키움(자율토론) ‘쉽게 알고 쓰는 ICT in 충남’을 개최한다.

‘쉽게 알고 쓰는 ICT in 충남’은 ▲퍼포먼스 마케팅(7월) ▲플랫폼 비즈니스(8월) ▲데이터바우처(9월) ▲데이터분석(10월) ▲업무자동화(11월) 등을 주제로 매월 1회 개최한다.
충남지역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회별 30명 선착순이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43

농업인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제15회 농업인 정보화대회 개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월 29일 ‘제15회 충남도농업인 정보화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정보화 농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온라인 라이브쇼, 개회식,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원은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구

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시장에서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 농업인 라이브 홍보 쇼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정보화 농업인 경진대회 수상자 24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도내 정보화 농업에 공헌한 유공자와 기관에는 5점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92



도·대기업 민관 협력 성장 약속
충남도와 롯데케미칼·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기업 임원은 7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업은 롯데케미칼, 삼성디스플레이, 엘지(LG)화학, 에스케이 에코플랜트(SK ecoplant), 한화토탈에너지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등 8곳이다.

충남 토마토 일본 넘어 홍콩·대만 시장 공략

도, 토마토 수출 간담회 개최
수출 확대, 시장 다변화 추진

충남도는 7월 26일 시군, 수출업체, 농가 등 관계자들과 토마토 수출 현황 점검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수출 및 생산 현황 보고, 수출품종 및 해외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 수출 확대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말까지 도내에서 생산된 토마토 수출실적은 연간 약 155만 달러, 완숙 토마토 105만 달러, 방울토마토 50만 달러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 140만 달러, 홍콩

11만 달러, 대만 3만 달러로, 90% 이상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토마토 수출을 확대하고, 일본 외에도 홍콩, 대만 등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63

충남 해양수산 기업 베트남 시장 진출

수출상담회 도내 8개사 참가
612만 달러 수출 계약 달성

충남도는 충남테크노파크와 7월 19~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출상담회와 제품 홍보·관측 행사를 진행했다.
참가기업은 수산식품, 조미김, 화장품 등 도내 해양수산 기업 8곳으로, 109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13건

총 612만 달러의 수출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
수출 상담회는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현지에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바이어를 대상으로 했고, 제품 홍보·관측 행사는 동남아시아 제1의 대형마트인 빅 시(Big C) 마트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홍보·관측 행사를 통해 약 3000명의 베트남 현지 소비자가 도내 기업 제품

의 우수성을 경험했다.
/외초산업과 041-635-4843

2022 충남관광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

- 모집인원** 15명 내외
- 모집기간** 2022. 8. 1. (월) ~ 8. 12. (금) 18:00까지
- 합격자 발표** 2022. 8. 19. (금)
- 활동기간** 2022. 8. 29. (월) ~ 11. 30. (금)
※ 발대식(8/29) 참석 필수
- 자격요건** SNS를 활용한 충남 여행 홍보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
※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 참고
- 활동메카** - 서포터즈 워크숍, 웰컴키트 등
- 원고료 및 우수 서포터즈 시상
※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 참고
- 주요활동** 1. 발대식·해단식, 팸투어 등 온·오프라인 행사 참석
2. 충남 관광 콘텐츠 취재 등 SNS 홍보 활동
3. 도내 축제, 재단 콘텐츠 참여 및 홍보활동
- 지원방법** 1. 포스터 하단 QR코드 스캔
2. 지원 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3. 구글폼 접수
- 발 표** 2022년 8월 19일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문 의** 관광마케팅실 (041-330-9722)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QR코드 접속

충청남도관광재단



軍의 과거·현재·미래 한 곳에서 만난다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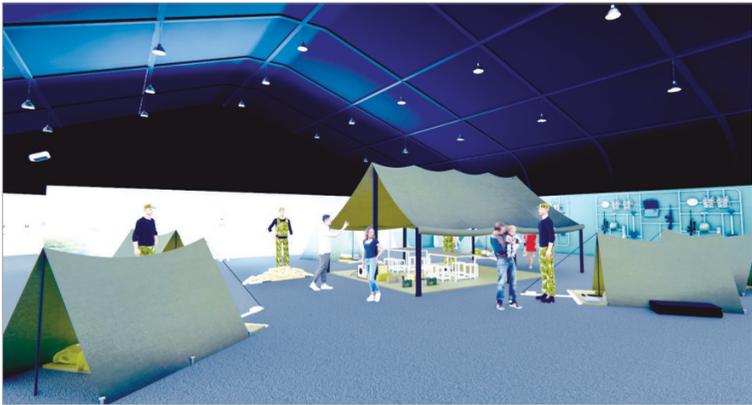
10월 7~23일 계룡대서 개최
수준 높은 전시관 조성 '박차'

오는 10월 충남 계룡시 일원에서 세계 최초로 '군(軍)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국제행사가 펼쳐진다.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2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에서는 6개 전시관과 1개 체험관을 통해 세계평화를 견인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문화·국방·산업이 어우러져 주제존, 국방존, 산업존 3개의 테마로 구성되는 전시관과 체험관은 관람객에게 차별화된 軍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존에는 엑스포의 주제 'K-



전시관 조성 예시-세계군문화생활관.

military, 평화의 하모니' 연출을 위해 세계평화관,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으로 조성된다.

국방존에는 세계 각국의 軍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軍문화생활관, 그리고 산업존에는 세계평화를 견인하는 첨단기술과 충남의 산업을 소개하는 4차산업 융합관, 지역산업관이

각각 조성된다.

또한 육군 주도로 조성되는 국방체험관은 SMART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위리어 플랫폼 등 첨단과학 국군의 위상과 친근한 軍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더욱이 전시관 조성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배려한



전시관 조성 예시-한반도희망관.

동선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전시물을 배치함은 물론, 엑스포 개최 후 활용 가능한 전시콘텐츠는 오는 10월에 준공되는 계룡시 상설 병영체험관과 軍 등에 이관하여 영구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전시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

선으로 전시 콘텐츠를 배치하는 등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훈 사무총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軍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사료용 옥수수 수확연사회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7월 29일 천안시 풍세면 일원 사료작물 재배포장에서 사료용 옥수수 수확 및 원형 곤포 사 일리지 제조 연사회를 개최했다. 연사회는 배환희 국립식량과학원 연구사의 '사료용 옥수수 국내 육성 품종 특징' 설명에 이어 최보람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의 '사료용 옥수수 재배 및 이용기술'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72

道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당초 목표 달성, 인센티브 확보

충남도는 8개 시군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6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체계적인 예산 집행·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경제 정상화와 민생안정의 조기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재정 운영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했으며, 도는 상

반기 신속집행 목표 대비 1.9%(2895억 원)를 초과 집행하여 광역도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아산시, 보령시(최우수), 공주시·논산시·계룡시·예산군·서천군·태안군(우수)이 각각 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리며, 특별교부세 4억 8000만 원을 받게 된다.

도는 전 부서와 시군, 공기업 등이 연초부터 집행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담당관실 041-635-2123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첫 발'

보령 관창산단 300억 투입

충남도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보령에서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사업의 첫 발을 뗐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도는 보령 관창산단단지 내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술 개발, 장비·기반 구축, 실증 등을 추진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고, 충남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지연구조합, 순천향대 등이 참여기로 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전기차 실주행 기반 배터리·차량 데이터 플랫폼 개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응용제품 검증 기술 개발 ▲리튬이온전지 최적 재활용 공정 기술 개발 등이 있다.

/에너지과 041-635-3456

공무원 면접 "정장 NO, 자율복장 OK"

도, 면접시험 옷차림 자율화 실시

충남도는 올해 여름철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도 옷차림 자율화를 실시한다.

도의 면접시험 옷차림 자율화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응시자 신체적 부담 완화, 정장 미 구입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또 자율·개성·실용 등을 중시하는

'엠지(MZ)세대'의 문화를 감안하고, '면접시험=정장' 고정관념 완화 ▲경직된 공식 문화 개선 등의 뜻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공식사회 복장 규제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예비 공무원에게만 정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제2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 면접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이 원

하는 편안한 옷차림으로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도는 이 면접시험 평정 요소 및 합격 결정 기준에 옷차림을 반영하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면접시험 대상자는 ▲9급 행정 ▲8급 보건진료 등 26개 직류 ▲9급 의료기술·운전 등 총 1441명이다.

/인사과 041-635-3532

2022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충남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신 자랑스러운 충남인을 찾습니다.

추천기간
2022. 7. 18.(월) ~ 8. 26.(금) / 40일간

선정인원
5명 정도(공적 내용에 따라 인원 조정)

추천대상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함으로써 모든 도민의 귀감이 되는 자
- (경 제) 충남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
- (지역발전) 특색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
- (복 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 힘쓴 자
- (문 화) 도민의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을 위해 공헌한 자
- (소 통) 도민 간 뜻이 통하도록 하여 문제해결에 앞장선 자

접수방법
인터넷(cnjh27@korea.kr), 방문, 우편(미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등
※ 우편주소(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추천서류
추천서, 공적조서 및 개요서, 증명자료 등(붙임 서류)

문의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041-635-3594

멸종위기식물 사진 공모전 열린다

도민 대상 8월 15일까지 접수

충남 태안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원장 김용식)은 8월 15일까지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멸종위기식물 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식물 88종을 주제로 총 30점을 선정한다.

공모 주제인 88종의 식물은 멸종 위기에 처해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가시연꽃, 매화마름, 노랑붓꽃 등이 있다.

공모전은 충남도민, 충남 소재 대학·기업에 재학, 재직자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사진은 미발표작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DSLR을 포함해 모든 사진 촬영 기기 사진이 허용되며



광릉요강꽃

2020년 이후 촬영본에 한해 1인 3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

기야생식물 88종을 담은 사진을 신청서, 서약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8월 15일까지 메일(edu9986@chollipo.



매화마름

org)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천리포수목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멸

종위기식물을 보전·교육·연구하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041-672-9982(610)

“도와주세요”...충남 119 신고 33만 건

코로나19, 구급, 화재, 구조 순

올 상반기 충남 119종합상황실에 33만여 건이 넘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충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9신고 접수 건수는 33만 6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간 32만 3823건 대비 3.8%p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코로나19 등 문의 안내가 9만 91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급 7만 1352건, 화재 1만 7920건, 구조 1만 2608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전체 신고의 53%가 집중됐

며, 요일별로는 특정 요일에 집중되지 않고 큰 편차 없이 고르게 접수됐다.

코로나19 관련 출동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6% 늘어난 1만 8530건, 확진 환자는 152% 증가한 4498명을 이 송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5660

도민 디지털 생활능력 ‘UP’

키오스크(무인단말기) 교육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충남문화교육센터는 7월 27일 서산 회포마을 체험관에서 농가주부모임 충남연합회 시·군회장단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일상 상황별 키오스크

활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보문해 연수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 활용하기 ▲스마트폰 건강관리(건강 어플 사용법 배우기) ▲스마트폰 메신저(카카오톡) 활용하기 등 3가지 과정이며, 도내 연수 신청기관 별로 순회 방문해 진행한다.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041-635-1275

혹서기 옥외노동자 안전 캠페인

지역 건설 현장 찾아 안전 교육

충남도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와 ‘혹서기 옥외노동자 안전 캠페인 및 노동 안전 교육’을 한다.

이번 안전 캠페인 및 교육은 직접 지역 건설 현장을 찾아 혹서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과 대

비책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포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한다.

한편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이 필요한 경우 1899-6867으로 전화하면 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3



충남도립대 글로벌 인재 육성 강화

충남도립대학교가 해외 어학연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쓴다. 충남도립대는 7월 31일 건축인테리어·호텔조리제빵·뷰티코디네이션학과 등 재학생 8명이 ‘하계 어학연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번 어학연수는 8월 30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각각 진행된다.

/충남도립대 041-635-6680

‘충남 벼 빠르미’ 밥맛·윤기 높였다

신품종 극조생종 벼 현장 평가회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극조생종 벼 ‘빠르미’의 단점을 개선한 신품종을 선보였다.

도 농업기술원은 8월 3일 당진 송악

읍 석포리 신품종 재배단지에서 미질과 병해충 저항성을 개선한 극조생종 벼 신품종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현장 평가회는 빠르미 재배단지 농가, 당진 해나루쌀조공법인,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도 기술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신품종인 빠르미1호와 충남26호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품종 빠르미1호와 충남26호의 완전미율은 각각 93%와 92%로, 기존 빠르미(88%)보다 향상돼 윤기치와 밥맛이 더 우수하다.

이와 함께 도열병 저항성을 높여 재배 농가의 고민을 해결한 것도 특징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051

가축질병 진단능력 전국 최고

브루셀라병 등 5개 항목 검사

충남도가 가축질병 진단능력 분야 전국 최고 수준을 입증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올해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 평가’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도 지자체 방역기관 46곳과 민간진단기관 13곳 등 총 5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브루셀라병, 돼지유행성 설사, 뉴캐슬병(항원, 항체), 병리조직 검사 등 5개이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질병진단능력 정도관리 검사항목 결과서를 취합·분석한 결과, 5개 전 항목에서 만점을 취득해 전국 최고 수준의 진단능력을 입증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 041-635-7048

여름 무더위 원기회복하세요

배명순 명인의 건강음식 만들기

-바나나타락죽

【재료준비】

재료 : 바나나1/2개, 불린콩1/2컵, 물1컵, 밥1/2컵, 우유500cc, 호두1/3컵, 죽염1/2ts.

【만들기】

1. 냄비에 불린콩과 물을 넣고 한 번 끓인다.
2. 콩이 익을 정도면 밥, 바나나, 우유를 넣고 같이 끓인다.
3. 다 끓인 재료를 믹서에 넣고 호두와 함께 갈아준다.
4. 소금으로 간을 하고 다시한번 저어가며 끓인다.
5. 기호에 따라 꿀을 넣어 먹어도 좋다.

사료 대신하면 좋다. 우유는 삼국시대부터 마신 기록이 있으며 소화 잘되고 원기를 돋우기 위해서 궁중에서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이 풍부하고 심장과 위, 폐에 좋으며 특히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바나나에 들어 있는 펙틴은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백혈병 성장을 예방하는데 도움도 되며 그 외 기억력을 높이고, 학습능력을 높이며, 기분을 조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세포 안팎으로 영양분과 노폐물의 이동을 조절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근육이 수축하고 신경세포가 반응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 바나나 타락죽은 숙면을 돕고 우울증을 이겨내며 원기 회복과 장기능 회복, 또한 세로토닌이란 성분이 우울증 등 정신 건강과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며 저녁 식



배명순 요리연구가

태안 위·보령 3위...충남이 '귀어 번지'

지난해 전국 귀어인 수에서 태안군 1위, 보령시 3위 등 충남지역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해 귀어난 가구는 전년보다 75가구 늘어난 356가구라고 밝혔다. 귀어인은 모두 399명으로 해양수산부의 전국 귀어·귀촌 통계 중 32%를 차지한다. 전남 40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가운데 태안군이 186명으로 전국 1위, 보령시가 106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충남, 특히 태안·보령이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 등 환경이 좋아서"라고 말했다.

여기에 귀어학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해수부 지정을 받아 2020년 문을 연 뒤 총 6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귀어 교육은 4주 동안 이뤄진다. 2주는 이론 교육, 2주는 현장 실습이다. 서천군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 어선 관련 실습이 진행되고, 서산시 지곡면 중앙어촌계에서 맨손 어업 관련 실습을 받는다.

귀어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증반에 참여하기도 한다. 면허를 딴 뒤 소형 어선을 구입해 주꾸미를 잡거나, 자망으로 광어·도다리 등을 잡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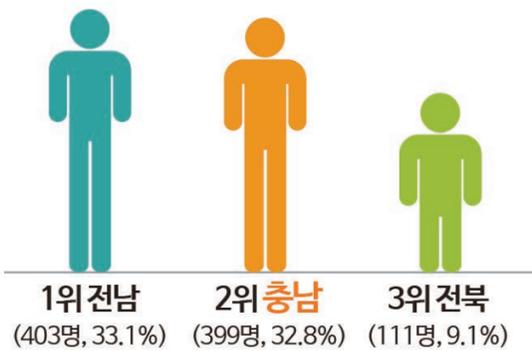
김혜동 khd1226@korea.kr

충남도 귀어귀촌 지원사업 현황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 시군 귀어귀촌센터 지원
-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 청년어촌정착 지원
- 어민수당 지원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 귀어학교 교육 운영
-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귀어인 현황 ('21년 현황)

- 충남: 전년 대비, 85명 0.3%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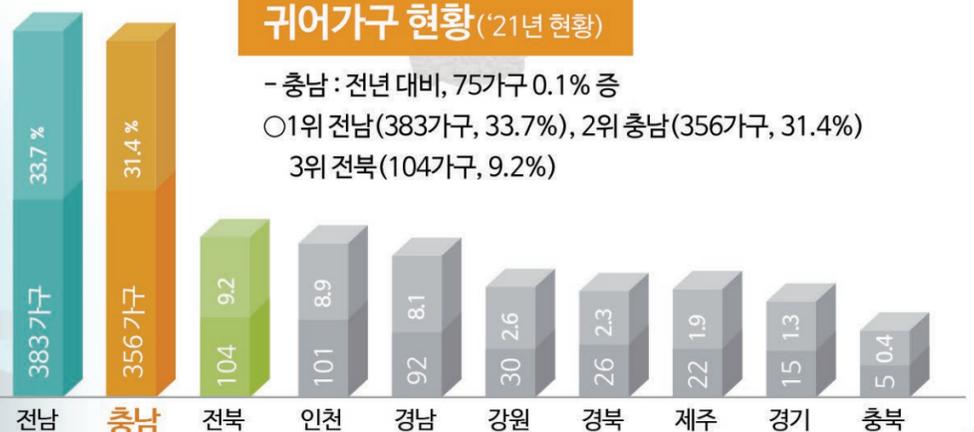


귀어인 규모 상위 5개 지역



귀어가구 현황 ('21년 현황)

- 충남: 전년 대비, 75가구 0.1% 증
○ 1위 전남(383가구, 33.7%), 2위 충남(356가구, 31.4%)
3위 전북(104가구, 9.2%)





더위야 물러가라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6일 오후 농촌유학체험을 받으러 충남 논산 양지서당을 찾은 한 어린이가 훈장님으로부터 등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산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50만원

기존 30만 원에서 상향 조정

[서산] 충남 서산시가 오는 8월부터 온통서산사랑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를 상향한다.

시에 따르면 구매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월별 판매액도 7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증액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한도 증액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8월 1일 0시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으로, 지류상품권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67개의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하는 지역화폐로, 구매지는 관내 소형 마트, 전통시장, 미용실, 식당, 병원 등 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판매대행점도 67개소로 늘었으며, 가맹점은 전체 등록 가능 가맹점 7800개소 중 5850개소로 약 75%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당진 빛낼 아이디어 찾아요”

2022 SNS콘텐츠 공모전 개최

[당진] 당진시가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당진을 알리는 ‘2022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웹툰 스토리’와 ‘이모티콘’, ‘영상’ 분야로 나누어 개최되며, 당진시의 매력을 나만의 방식으로 콘텐츠에 담으면 된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등록 외국인인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9월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웹툰스토리 분야에 입상하게 되면 당진시 캐릭터인 ‘당진이’ 웹툰 스토리 라인으로 활용되며, 이모티콘 분

야에 입상하는 경우 카드 뉴스와 영상 콘텐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영상 분야 입상 시 당진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시 상금은 총 800만 원으로,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당진시상장과 함께 ▲ 종합대상 200만 원, ▲ 영상 분야는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각각 150만 원과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 수여될 예정이며 분야별 상금은 상이하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상에서 웹툰 스토리와 이모티콘으로 분야를 넓힌 만큼 시민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우리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시 제공

대전해수욕장 축제 열기 ‘후끈’

해양머드박람회·머드축제 인기 13일 터프머더 어드벤처 진행

[보령] 올해 여름 휴가철 대전해수욕장은 연일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제25회 보령머드축제’와 함께하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지난 7월 16일 개막해, 오는 8월 15일까지 관광객 맞이에 연일 분주하다.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우리나라 미래의 해양 신산업을 내다보고자 해양·머드 속에 담긴 인류와 생명의 이야기를 7개의 전시관에 담아내고 있다. 해양머드주제관은 생물 다양성의 보

고인 갯벌을 상징화했으며, 멸종 위기 21종 등 보기 힘든 진귀한 생명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해양머드체험관은 해양산업을 특화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 관람객에 흥미를 끌며, 해양머드&신산업관은 해양신산업 정보와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기관들의 홍보공간으로 활용된다.

해양레저&관광관은 최근 청년 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 레저 관련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해양머드 웰니스관에서는 머드하이드로테라피 체험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다.

그간 박람회조직위에서는 전시·체험

관 운영은 물론 ‘축제산업화 국제세미나’, ‘해양머드웰니스 컨퍼런스’ 등의 학술행사도 개최해 각국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박람회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 특히 박람회와 함께 티켓 하나로 즐길 수 있는 세계인의 여름 축제인 ‘제25회 보령머드축제’는 체험 위주의 놀이형 시설로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올해 여름 최고의 피서지로 선택받고 있다.

8월 13일 ‘2022 터프머더 어드벤처 보령대회’ 등 이벤트가 열리며, 머드 체험장에서 대형머드탕과 슬라이드 등 에어바운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보령시 제공

68년 만에 되찾은 화랑무공훈장

태안군, 고 송만복 일병 유가족 확인

[태안] 태안군이 국방부와 함께 추진 중인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군은 6·25 참전용사인 고 송만복(1932~1981) 일병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68년 만에 배우자 최복희(82, 태안읍) 씨와 장녀 송영자(59, 인천시) 씨 등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을 전수

했다고 28일 밝혔다.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전쟁 당시 긴박한 전시상황으로 상을 받지 못한 유공자를 발굴해 훈장을 전달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등 전국 지자체와 국방부 및 육군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고 송만복 일병은 1952년 입대해 제2훈련소 소속으로 육군장병 양성 등에

큰 공을 세워 지난 1954년 10월 16일 화랑무공훈장 서훈을 받았으나, 송 일병이 제대 후 이사를 간 데다 당시 주민등록 시스템 부재로 소재파악이 어려워 국방부가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그 후, 6·25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이 시작되자 송 일병의 장녀가 국방부에 아버지의 참전 사실을 알렸으며, 사업 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마침내 68년 만에 고 송만복 일병이 뒤늦은 화랑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태안군 제공

논산시, 코로나 무료 검사소 확대

시민·외국인근로자 대상

[논산] 논산시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달 28일부터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시는 선별검사소 내 검체채취,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인력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검사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시민 및 외국인 근로자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른 PCR 우선순위 검사 대

상자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가 해당한다.

비인두도말 PCR검사로 진행되며, 우선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후 양성으로 판독될 경우 pcr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시는 8월 중 감염취약시설 대상 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코로나 방역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제공

560만 충청인의 염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 1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촬영
- 2 온라인 서명운동 홈페이지 접속
- 3 이름, 거주지 입력 후 [서명하기] 클릭

충청남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온라인 서명운동 <http://ccbank-onlinesign.kr>

폭염에도 이어지는 이웃사랑...“어려울 때 도와야죠”

지역사회 곳곳서 봉사·기탁
삼계탕 나눔·냉방기 지원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큰 도움

[서산]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힘겨운
계 여름을 보내야 하는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나눔과 기탁이 충남 지
역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태안 아라가온펜션에서
는 100만 원을 ‘안면읍 행복한 기부’
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기탁식에 참여한 양희을 대표
는 “무더운 여름철 힘겹게 보낼 어려
운 이웃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
리고 싶어 기탁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김장호 안면읍장은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이겨낼 어
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찾아뵙고 살피
더위는 낮추고 마음의 온도는 높이겠
다” 전했다.

또 지난달 25일 다운건설(대표 남진
우)에서 태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
동위원장 조한각·손진성)가 추진하는
‘연합모금 기부 릴레이’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남진우 대표는 “매월 조금씩 정기후
원을 하던 중 후원금이 다양한 복지사
업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에 보람을 느
껴 이번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따듯
한 마음을 전했다.

연합모금을 통해 접수되는 현금 및

물품은 지역의 저소득층 복지문제 해
결을 위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사
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서산지역에서는 서산시 종합사회복
지관이 운영하는 기능 취미 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 등 15명으로 구성된 빵
드림봉사단이 매일 1회 직접 빵을 만
들어 취약계층에게 전달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사활동이 잠정
연기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완화와 봉
사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27일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추진됐다.

김종국 단장은 “작고 소박한 빵이지
만, 봉사단체 회원들이 제과제빵 프로
그램으로 배운 기술로 어려운 취약계
층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
다.”고 말했다.

서산시 음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심결섭·박상열)에서는 지난달
25일 여름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폭
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관내 홀몸 어
르신 등 저소득 취약계층 12가구에 냉
방기(씨클레이터 12대, 140만원 상당)
를 지원했다.

취약계층 가구는 음암면 이장단협의
회(회장 장명순)와 협력하여 마을별
추천하였으며, 이장단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해당가
구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지 안위를
살피며 한가정 한가정 직접 방문 전달
하였다.

심결섭 민간위원장은 “불볕더위 속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포함한 저소
득 취약계층 가정이 이번 여름 온열질
환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생활
을 유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군 삼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서는 지난달 26일 나눔과 소통의 장으
로 ‘LH시현마을 공유냉장고·나눔공간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 30일 첫 시범운영을 거친
LH시현마을 나눔공간 사업은 매일 1
회 저소득 주민 및 홀로 계신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후원자를 발굴
하여 지원하고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나눔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윤신구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공유냉장고와 세탁기
를 후원해 돈육, 김치, 밀반찬 등을 보
관하고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불세탁이 필요한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세탁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 송악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
회 회원 7명은 지난달 26일 중북을 맞
아 관내 독거 어르신 12명에게 삼계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무더운 날씨 속 회원들은 정성껏 끓
인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
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어르신들께서는 정성껏 만든 음식을
드시며, 음식을 준비하느라 구슬땀을 흘
린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냈다.

/서해안 신문



장마철 청소봉사로 ‘구슬땀’ 청양군 운곡면 남내 새마을 지도자회(회장 임종현, 명노순)가 지난달 21일 장마 속에서도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지도자들은 운곡면 미량리에 있는 한 장애인 가정을 찾아 집 내부 청소와 외부 잡초 제거에 구슬땀을 쏟았다. /청양군 제공

‘관계인구’ 늘리는 신개념 체험 농장 ‘호응’

도농교류 ‘부여 서울농장’ 개장

[부여] 도농교류 플랫폼 ‘부여 서울농
장’이 이달 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장
했다.

농촌문화, 축제, 관광 등에서부터 귀
농·귀촌 교육, 힐링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공
간이다.

장암면 정암리 근드래 로컬푸드 중
합유통센터 내에 숙소 12동, 관리실 2
동, 운동장 420㎡, 주차장 1097㎡, 체험
농장 640㎡ 규모로 조성했다.

정식 개장 3개월 전부터 마련한 세
차례 당일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기
대를 모았다. 객실 정비가 마무리되면
서 숙박 체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어 더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관광객들이 연잎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이달 제20회 부여서동연꽃축제와 연
계해 마련한 ‘부여 서동연꽃축제 두
배 즐기기’ 2차 3일 체험 프로그램 예
약에는 신청자가 몰려 10여 분만에 마
감되기도 했다.

40명 신청이 마감된 후에도 대기자
가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
을 받았다. 내용도 ▲3D 연꽃만들기
▲연꽃 연잎밥 만들기 ▲해설가와 함

께하는 공남지 투어 ▲블루베리 수확
체험 ▲친환경 스테비아 모종심기 등
면면이 다채롭게 꾸러졌다.

부여 서울농장은 부여군 민선8기에
서 역할을 두고 추진하는 관계인구 늘
리기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부여 서울농장에 방문객들이 부여에
호감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찾게 되면
서 관광, 특산물 구매 등에 참여하는
등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탁 운영을 맡은 충남친환경청년농
부 최동혁 대표는 “부여 서울농장을
한번 방문했던 분들이 좋은 기억을 지
니고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
며 “자신이 모내기했던 작물을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추수 프로그램을 마련
하는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천안 시민의 상 후보자 공모

19일까지...지역사회 발전 공로

[천안] 천안시는 8월 1일부터 19일까
지 ‘제39회 천안 시민의 상’ 수상 후
보자 추천을 공모한다.

시는 우수한 연구·창작 및 의욕적
인 애항활동 등을 통해 향토문화 발
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가 크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일하는
시민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부문은 ▲교육학술 ▲문화예
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
제 ▲특별상 등 모두 6개이다.

시는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천
안 시민의 상 조례’에 의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1인의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
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으면 시상

하지 않을 예정이다.

후보 자격은 천안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천안 소재 기관·단
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이다. 해당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있
으면 소속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교 이상의 총(학)장, 천안시 국장, 사
업소장, 구청장, 읍·면·동장 또는 읍·
면·동장 의견서를 첨부한 주민 30인
이상의 추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
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천안시 문
화관광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서류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행정공고/고
시란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041-
521-5150)로 문의하면 된다.

‘제39회 천안 시민의 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1일 흥타령축축제 개막일
에 진행된다. /천안시 제공

말씀의 성지, 독립기념관 시·어록비

I윤성희의 만감萬感

겨레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독립기념
관. 이곳의 상징 이미지는 아무래도
‘겨레의 탑’이 될 것이다. 눈에 보이
는 그 자체로 압도감을 느끼게 하는
높이 51미터의 대형 조형물이다. 이
기념탑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서
대부분 관람객의 동선은 ‘겨레의
집’을 거쳐 각종 국내 전시관으로 이
어진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몸
과 마음을 바쳐 민족혼을 세우고자

했던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을 눈
과 귀에 담을 수 있다.

실내 전시물과 영상들을 추체험하
는 것만으로도 독립기념관의 일정은
빠듯하지만 이곳에서는 시간을 길게
늘려도 될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
다. 두어 시간의 품을 들여서 공원처
럼 단정한 외곽 둘레길을 순례하듯
걷고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내 곳곳이 그야말로 ‘말씀의 성
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시
순례란 한 걸음 한 걸음 몸을 움직이
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과 행동의 결

합, 믿음과 실천의 일치로 나아가는
과정 아니던가.

둘레길에는 애국선열들의 뜨겁게
끓어오르는 정신이 담긴 시·어록비
103기가 간직되어 있다. 이순신, 김시
민 등 조선 시대 국난을 이겨낸 인물
들과 김구, 한용운 등 일제 침략기에
불꽃 같은 민족혼을 보여줬던 인물
들의 말씀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이
다. 내가 이곳을 말씀의 성지로 호명
하는 이유다. 그러나 선열들의 숭고
한 정신 앞에 말과 실천을 하나로 모
으는 순례의 다리품을 아껴서 무엇



겨레의탑

에 죽어가는 동포를 살려내기 위해
서는 메스가 아니라 펜이어야 했다.
메스는 몇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만
민족 모두를 살릴 수는 없는 일이
였다. 루쉰은 절박한 심정으로 펜을

들었다. 말의 힘이란, 글의 힘이란
그런 거였다. 우리의 열사, 지사, 시
인들도 그랬을 거였다.

누군가는 유언으로, 누군가는 옥중
서신으로, 또 누군가는 투쟁을 독려
하는 통문으로 글과 말을 남겼다. 시
인은 아름다운 시어의 품안에 날카
로운 비수를 숨긴 채 무려한 침략자
들에게 맞섰다.

말씀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 이곳
시·어록비들은 그런 점에서, 어떤 것
은 자기이행적 예언이고, 어떤 것은
절절한 기도문이며 또 어떤 것은 민
족의 가슴에 두고두고 새겨야 할 경
전인 것이다.

/윤성희(문학평론가)

지역 정체성을 품은 문화예술교육

내포칼럼



정연희 교수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

문화예술 교육, 공동체 육성에 필요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다각화 과정

지역 주민의 삶 더욱 풍요롭게 할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육성해야

필자는 중앙의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 교육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일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교 교육을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문화자원과 학교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수용 능력을 가지고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현장으로서 '지역'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왔다.

특히, 현재 실행 중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우고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은 17개 광역 단위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그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지역이 생활권 단위에서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기초 단위 거점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문화예술교육은 향후의 종합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교육진흥원 그리고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의 역할 정립 등 세부적인 도전과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성이 일관되게 지역 중심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추진된 지 십 수 년이 경과하는 동안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중앙에서 지역으로 넘기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단을 가로막아 온 원인 중의 하나는 '지역이 문화예술교육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세간의 염려가 작용하였다. 중앙에서 주로 활동하였던 필자도 크게 다르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충남의 소도시인 한 지역에 이주하여 살게 되고서야 그 생각이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 중앙-지방의 이분법 프레임 속에 갇힌 채 지역을 단지 중앙의 주변으로 치부해 왔던 것을 깨달았다.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옹호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가치 실현을 위한 증거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졌던 필자가 지역에서 마주한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문헌으로 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삶이 묻어나는 다양한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 실천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장소와 사람, 사람(프로그램 제공자)과 사람들(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으로 '공감의 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같은 지역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독창적이고 주옥같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경계가 확장되고 이로서 지역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역사나 문화유산 등 지역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행적이고 국소적인 지역성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여건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목적으로 미래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모색하는 전향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성이 국소성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은 학습자들을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연결시켜 주고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와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들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실천하는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외운동기구 관리 철저히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교육과 내 가족의 생계가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나만의 여유로운 생활, 건강한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중 100세를 살아가는 요즘 어르신들에게는 노년의 건강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선거에 당락을 갈라놓을 만큼 노인들의 민심이 대단하다 보니 지자체장을 비롯해 도·군의원들은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처음 선보인 것이 경로당의 러닝머신이었다.

마을 곳곳이 훌륭한 산책코스이지만 내 돈이 아니니 무슨 상관이라? 시골경로당에 한 대 썩 들여놓았지만 사용법을 잘 모르는데다 사용 중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이를 대체한 것이 안마의자다.

사정이 이러하자 고장이 적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야외운동기구가 선을 보였다.

처음 공원이나 체육관 주변에 세워진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다.

각 지자체장을 비롯한 정치인, 읍·

면장들은 '주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목적으로 이장들의 요구에 앞 다투어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을경로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으며 없으면 이장이나 노인회장이 힘이 없는 것으로도 간주하기도 했다.

그리고 10여년이 흐른 지금, 서천군에는 총 252개소에 875대가 설치됐다.

대 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으로 계산하면 대략 20억원이 사용된 셈이다.

정말 야외운동기구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만큼 시골 주민들과 노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을까?

주민들을 위한 건강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마구 설치한 러닝머신이나 안마의자, 야외헬스기구는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각 마을 창고나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를 위해 구입하고 세금이 쓰였는지? 의구심만 들뿐이다.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혈세가 이리 쓰여서는 안되며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업들이 선심성으로 진행 되더라도 안될 일이다.

앞으로 노인과 주민을 위한 건강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세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사후 관리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꼼꼼히 계산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의 세금이 더 알차고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싶다.

윤일구씨네 아이들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4)



소중애 동화작가

내가 8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우리 육남매가 엄마 없는 아이들, 홀아비 아이들이란 말을 들을 까봐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를 관리하셨다. 규칙도 여러 개 있었다. 그 중에 떼지어 돌아다니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규칙을 어겼다. 몹시 더운 여름 밤이었고 장학사로 근무하던 아버지는 멀리 출장을 가서 늦게 오신다는 날이었다. 우리는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변화한 온양온천역 광장까지 나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엄마를 잃고 우는 작은 여자 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거의 탈진 상태였다. 나는 아이를 우리가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망설이는 언니들에게 이 아이를 안 데려가면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 서커스에 팔려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건방지게 조숙했는데 만화부터 소설까지 글자로 된 것들을 마구마구 읽어 댄 탓에 허무맹랑한 상상과 공상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아이를 놔두고 가 아이가 잘못되면 그건 다 우리 탓이

라고 말했다. 두살씩 터울로 세 언니도 고만고만한 아이들이었다. 내 고집에 넘어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먹고 씻기고, 내 옷으로 갈아입히니 나는 살아 있는 인형을 얻은 듯 좋아했다. 밤이 깊어 우리는 나란히 잡자리에 누웠다. 나는 당연하게도 아이 옆이었다. 식모 언니부터 데려온 아이까지 키 대로 누어 잠이 들었다.

한밤중. 집에 오신 아버지가 우리들을 깨웠다. "애는 누구냐?"

놀라 소리치던 아버지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오는 듯하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고 난 아버지가 야단치셨다.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를 찾겠느냐. 경찰서에 데려갔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말씀 하셨다. 언니들은 슬그머니 내가 고집을 부려서 데려왔다고 했다. 나는 울면서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우리가 키워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아이는 경찰서에서 밤새운 부모를 따라 돌아갔다. 나는 울면서 아이를 보냈다. 언니들은 괜시리 내 머리를 쥐어박았다. 후에 들은 아버지 말씀.

집에 와서 자는 우리들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서 왼쪽부터 세어보고 오른쪽부터 세워봐도 여덟명! 한명이 더 많더라. 얼마나 놀라셨을까?

어릴적 이야기가 많이 들어간 '윤일구씨네 아이들'이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걷는 내포동학길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 내포동학길

내포동학길은 먼천읍성에서 승전목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올해 늦은 봄 어느 날, 이 길을 걸으며 동학군이 일본군 정예 부대와 싸워 이긴 승전목 전투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는 웬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일본군을 무찌른 동학군이 새삼 자랑스러웠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그때와 달리 마음을 다스려 동학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싶어 다시 이 길을 찾았습니다. 외세에 맞서 싸운 동학군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바탕이 되는 동학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요.

동학이 개창된 19세기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오직 혈통에 의해서만 양반과 천민이 나뉘는 사회, 다시 말해 금수저와 흙수저가 아버

지를 얼마나 잘 만나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였습니다. 핏줄에 의해 지배된 사회, 차별이 일상적인 사회. 그것이 바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학이 등장했습니다. 동학은 인내천(人乃天), 즉 '사람 자체가 하늘'이라고 하였습니다.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은 인간 자체가 신적인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 내재하는 신적 생명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곧 하늘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이었습니

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존재였습니다.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인내천'이란 말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을 내려줬을 겁니다. 양반과 천민 모두가 내면에 하늘을 품고 사는 존재로 평등하다는 사상. 그 빛은 신분제 사회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

가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평등에 맞서는 동학의 핵심 정신입니다.

시간이 흘러 21세기가 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공정'은 매우 중요한 화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정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일까요. 이제는 핏줄 대신 자본과 사회적 지위가, 새로운 계급과 그에 따른 차별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회에 필요한 정신은 동학의 '인내천' 정신이 아닐까요.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있는 동등한 존재로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장

절절한 고향 사랑 녹인 '예산아리랑'

예산 출신 이윤아 씨 싱글앨범 발매
K푸드송 시리즈 '삼계탕타령' 등



[예산] 충남 예산지역 출신 소리꾼 이윤아(33·사진)씨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신곡을 발표했다. 천백년과 예당호, 사과와 황새... 가사와 제목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싱글앨범 '예산아리랑(6월 14일 발매)'이다.

7월 1일 윤봉길체육관에서 열린 최재구 군수 취임식에서는 함께 작사를 한 가수이자 어머니인 서점마(59)씨와 공연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윤아 씨는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 등 지역이름을 딴 아리랑이 있다. 예전부터 예산아리랑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와 작곡가님이랑 얘기가 돼 만들게 됐다"며 "예산을 모르는 사람이 작사하면 정확하게 쓰지 못할 것 같아 어머니랑 둘이 상의하면서 알리고 싶은 아름다운 부분과 추억 등을 많이 담으려 노력했다. 2절에 나오는 예당호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많이 낚시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머니와 작사작업을 해보겠나. 둘이 작사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저보다 어머니 아이디어가 더 많이 들어갔다. '예산아리랑' 이어서 더 즐거웠다"고 덧붙였다.

윤아씨는 고향주민들 앞에서 점마씨와 한 무대에 올라 '예산아리랑'을 선보인 군수취임식

공연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의미있는 날 '예산아리랑'을 불러드릴 수 있어 정말 기뻐다. 예산분들이 함께 부르실 수 있게 중간에 '얼씨구 좋다 내 고향 예산'을 넣어 부탁드렸는데, 같이 해주셨다. 하나가 된 느낌이 들었다. 그 어느 무대보다 편했다.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초복을 하루 앞둔 7월 15일에는 무더위 지친 못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K푸드송시리즈' 첫 번째 곡 '삼계탕타령'을 발매했다. 재밌

는 어쿠스틱 기타연주와 힘찬 리듬, 판소리렘, 대금·해금·가야금 앙상블에 더해 "삼계탕 탕탕탕"이라 외치는 흑이 귀에 '쑹' 박히는 신나는 노래라는 설명이다.

한국음식을 국악으로 표현하는 K푸드송은 팝아트, 래퍼, 힙합댄서 등이 어우러져 '우리 것'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젝트다. 앞으로 '비빔밥타령'과 '불고기타령' 등이 나올 예정이다.

어머니 점마씨는 "예산아리랑'과 '삼계탕타령' 반응이 좋다. 지인들에게 많은 연락이 온다. 팬들도 좋아하신다"며 "윤아가 저보다 더 고향에 애착을 갖고 있다. 예산분들이 윤아를 신경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예산아리랑' 가운데 주요 가사를 옮긴다.

아리랑 아리랑 예산아리랑/인심 좋고 살기 좋은 예산아리랑/아리랑 아리랑 예산아리랑/사시사철 좋을씨고 예산아리랑//충효와 예절이/천백년의 향기로/이어진 내 고향 포근한/나의 사랑 예산/어릴 적 손 붙잡고/밤뉘시 즐겨하던/추억이 가득 담긴 예당호/오늘도 그림다/가을빛 붉게 물든/어여쁜 사과/오늘도 풍년일세/얼씨구 지화자 좋구나//하얀 눈 흘날릴제/인심 좋단 소문 듣고/고향 땅 다시 밟은 나의 벗/황새야 반갑다//아리랑 아리랑 예산아리랑/인심 좋고 살기 좋은 예산아리랑//아리랑 아리랑 예산아리랑/사시사철 좋을씨고 예산아리랑

/예산 무한정보신문

충청인의 詩香

다가가기

개울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마주 보며 자라 온
버드나무와 물푸레나무
조심스레 가지 뻗어 다가가더니
어느 날부터 함께 영겨 살고 있다
더 일찍 만나지 못해 아쉬워하며
남은 생애 저렇게 어우렁더우렁
살아가기로 했다 보다
서먹한 사이라도 먼저 다가가
손을 잡으면 따스해지는 관계
산도 바다도 가까이 다가가면
팔 벌려 반기는 친구가 되어 주는데
한 걸음 다가가가 서툴러
모르는 채 지나온 인연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찬 바람이 불면 더욱
서로를 보듬어 감싸 안는
버드나무와 물푸레나무
진정 다가가는 그 사랑.



장미숙 (초원) 시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충남문인협회 회원
·한국가곡작사가협회 부회장

의거 90주년 기념 '청년 윤봉길' 공연 성료

예산 '극단 예촌'...대통령상 수상
서울 예술의전당서 총 7회 공연

[예산] 충남 예산군 소재 '극단 예촌'의 윤봉길 의거 90주년 기념 '청년 윤봉길' 공연이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지난 7월21일부터 7월2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청년 윤봉길'은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뜨거웠던 독립의 열망을 청년 윤봉길, 남산 윤우의(본명)의 눈을 통해 조명한 작품이다.

극단예촌 '청년 윤봉길'은 지역 민간예술단체

로는 처음으로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공연된 작품으로 공연되기 전까지 기획, 홍보 등을 단계에서 직접 수행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계획한 객석 점유율을 상회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승원 연출은 "꿈의 무대인 예술의전당 공연을 위해 배우와 스태프가 40명 가까운 연극인들이 함께했다. 저 또한 우려가 많았고, 객석을 채워야 한다는 목적으로 인해 본 일이 없는 것 같다"며 "전국 교육청에 단체관람 공문을 보내고, 단체들을 찾아 나섰는데 매 회마다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관객들을 보면서 안도할 수 있었다. 공연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는 관객 여러분의 말씀에 무대를 지키고 창작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극단 예촌 제공



극단 예촌 단원들이 마지막 공연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거리·서북 갤러리 8월 전시 '풍성'

천안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일환

[천안]천안문화재단은 한 뼘 갤러리(삼거리·서북 갤러리, 총 2개소)에서 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채로운 대관전시 5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삼거리 갤러리에서는 총 4건의 전시를 진행한다. 8월2일부터 14일까지는 천안에서 꾸준한 작업 활동을 해온 김대유 작가의 신작을 볼 수 있는 14번째 개인전 '탈영도화'를 연다.

1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드로잉매달의 'Dream Sketchers'는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어반 스케치 장르로 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여행스케치회의 '색이 있는 풍경'을 진행한다. 천안을 중심으로 각 지

역의 다양한 모습을 회화로 표현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8월30일부터 9월4일까지는 전통규방문화의 우수성과 규방공예의 활용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바람꽃 지수의 '지수 꽃으로 피우다'를 운영한다.

서북 갤러리에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자연의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한 회화작업을 하는 박경호 작가의 '반추'를 선보인다.

'삼거리 갤러리'는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서북 갤러리'는 서북구청 별관 1층에 위치해 있다. 월요일은 휴관으로,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www.cfac.or.kr)을 참고하면 된다.

/천안문화재단 제공

한지, 규방 공예 '원데이클래스' 개시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참여자 모집

[아산]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는 '8월 공예워크숍'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8월 공예워크숍은 ▲4일, 6일 '원데이클래스: 부채 입히는 선' ▲11일, 13일 '원데이클래스: 그물가방, 유행의 재발견' ▲18일, 20일 '원데이클래스: 화병커버, 유리병의 재발견' ▲6일, 13일 '전시연계 체험

워크숍: 레터프레스, 유물의 재발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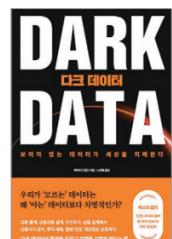
워크숍 참여는 네이버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아산공예창작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교육, 전시, 상품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충남을 대표하는 공예문화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제공



사서들의 서재



<다크 데이터/데이비드 핸드 /더퀘스트/2021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엔 이미 수많은 데이터들이 넘쳐나고 있고, 그 데이터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우주의 보이지 않는 상당 부분에도 엄연히 암흑물질이 존재하듯, 데이터의 유형 중에도 수집된 데이터지만 분석 및 의사 결정에 활용되지 않는 '다크 데이터(Dark data)'란 것이 존재한다.

데이비드 핸드가 소개하는 <다크

데이터>란, 수치 등의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이미지나 영상, 목소리, 몸짓 등의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기에 분석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지칭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며 기록되지 않는 다크 데이터가 우리의 결론, 결정, 행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심지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가 다크 데이터를 계속해서 경시한다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나쁜 결정을 내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발생 형태도 다양하고 더군다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크 데이터를 어떻게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

저자는 다크 데이터의 유형을 15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주식, 금융, 보험 등 생활 속의 다양한 사례를 들

어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한 다크 데이터를 방지할 경우 불필요한 저장비용의 지출과 취약한 보안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보 사회에서 지식과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며,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예측과 의사결정을 돕는다.

기존의 관점을 바꾸어 활용할 만한 데이터에 대한 범위를 다크 데이터까지 확대한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입법정책담당관 진슬기



“애마 노디와 함께 살아갈 곳을 찾아왔습니다”

당진에서 먼저 살아보기
윤신웅 에디터의 농촌 정착기
승마 농장 열기 위한 준비과정
“시골에서 아이디어 샘솟아”

[당진]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와 산림 레포츠지도사(산악승마) 등의 자격증을 보유한 윤신웅(39) 에디터는 본인이 키우는 말 노디와 함께 살아갈 터전을 찾기 위해 당진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실천하고 있다.

그가 승마를 처음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다. 연기를 전공한 윤신웅 에디터는 아버지로부터 “사극 촬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을 배워보라”는 제안을 받고, 승마를 시작했다.

골프나 수상스키 등 못하는 운동이 없을 만큼 운동신경이 좋았던 윤신웅 에디터는 승마도 곧잘 해 냈고, 나중에는 연기보다 승마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됐다.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윤신웅 에디터는 승마 선수와 코치 생활을 하게 됐다. 각종 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 그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문득 나중에도 말만 타면서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윤신웅 에디터는 자신에게 더 맞는 일을 찾으려 제조업 등 다른 일에도 눈을 돌려봤다. 그러나 결국 미래에 그와 함께할 존재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말과 함께 미래를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도시의 승마장이 아닌 시골에서 체험농장을 하고 싶은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이후 윤신웅 에디터는 그의 본 주 소지인 경기도 용인에서 말과 함께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됐고, 본격적으로 농장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았다. 그러던 중에 당진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시골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업에 대한 꿈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리고 싶은 윤신웅 에디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노디와 함께 살아갈 터전이 당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윤신웅 씨가 직접 기른 작물을 살펴보고 있다.

당진에서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팀원들과 함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다.

윤신웅 에디터는 “아무래도 사업에 염두에 두고 있어서 매매라든지 임대 계약, 허가 등등 고민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말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고 지역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시골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말과 함께하겠다는 꿈이 앞



승마선수로 활약해 온 윤신웅 씨.

으로 어떤 모양으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떤 모습이든 지금은 팀원들과 잘 맞춰나가면서 즐겁게 활동하고 싶다”면서 “말도, 그리고 함께 하는 팀원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당진신문

“먹거리주권 잃으면 국민건강 위협”

강희춘 삽다리영농조합 대표
‘토종씨앗’ 나누기 눈길
메주콩·사과참외·옥수수 등



[예산] 신토불이(身土不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다.

‘몸과 땅은 둘이 아니’라는,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좋다’는 ‘동의보감’의 평범한 진리. 대중가요가 나와 인기를 끌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지만, 동네마트에도 수입과일 등 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는 시대다.

강희춘(사진) 삽다리영농조합법인(충남 예산군) 대표가 10여년째 이웃과 ‘토종씨앗’을 나누는 눈길을 끈다. 그는 1200여평 밭에 10여년 전 직접 전북 임실군 등에서 구한 메주콩, 사과·개구리참외, 옥수수, 들깨, 노각을 기르고 있다.

모두 토종이다. 올해만 군내 50~60농가와 ‘씨나눔’을 했다고 한다.

강 대표는 “원래 흰콩은 하얀꽃, 서리태 등 검은콩은 보라꽃이 핀다. 토종메주콩은 흰꽃인데 보라꽃이 핀다. 오묘하다”며 “토종옥수수는 작지만 아주 맛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참외와 달리 파랗게 익는 사과·개구리참외는 처음에 노랗게 익는 줄 알고 기다렸다가 하나도

먹지 못했다”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다. 병해충에도 강하다.

경기 화성농협 로컬푸드매장에서는 사과참외 2개에 9900원을 받을 정도로 가격대가 좋다”고 덧붙혔다.

강 대표가 토종씨앗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곡물가격이 심상치 않다. 토종씨앗과 먹거리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후대를 위해서 더더욱 그렇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씨나눔을 한다”며 “GMO 유전자 조작 등 외국산농산물이 우리식탁을 위협한다. 먹거리주권을 잃으면 국민건강이 위협해진다. 우리는 농업군이다. 토종씨앗을 찾아 지키고 나누는 공동체정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무한정보신문

지역에서 35년 일군 글밭 ‘풍성’

아산문학, 60호 발간·기념 행사

[아산] 지난 1987년 종합 순수문학지를 표방하고 창간된 ‘아산문학’이 지령 60호를 맞이했다.

(사)한국문인협회 아산시지부(지부장 장미숙, 이하 아산문협)는 지난 7월 23일 제일호텔에서 회원 및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문학 제60호 출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아산문학 제60호 출판기념회는 손애정 아산문협 부지부장의 사회로 전홍섭 편집위원의 책소개, 신상우 시인의 시집 발간기념회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시낭송회는 ▲박춘희 ‘박하사탕’ (자작시)을 비롯하여 ▲김군자 ‘내가 선택한 이유’ (자작시) ▲신상우 ‘내 인생의 별이 되어’ (자작시) ▲정진삼 ‘어머니’ (자작시) 등 아

산문협 회원과 지역 주민의 시낭송회가 펼쳐졌다.

1987년 (사)한국문인협회 온양시지부(아산시지부 전신)가 창립된 직후 그해 가을에 ‘설화문학’이라는 제호로 제1집을 펴낸 아산문학은 초기 당시로는 파격적인 한 해에 봄·가을 두 번 내는 반연간지로 발행하다가 회원수 부족과 경제사정 등으로 연간지로 전환했다. 그러다가 다시금 회원들의 왕성한 창작열에 고무돼 봄·가을 두 번 내면서 2022년 상반기 호로 제60집을 내기에 이른다.

이번 60호는 지난 5월말 출판기념회를 갖기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연기됐다가 이날 출판기념회를 갖게 된 것이다.

제60호는 지역 주민들의 축하 메시지, 사진으로 보는 지령 60호까지의 각종 행사 등으로 꾸며졌다.

/온양신문

‘수요자 맞춤’ 방과 후 돌봄 체계 강화해야

알기 쉬운 성인지 칼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 시간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정책이 새롭게 변화하였고, 돌봄 지원 체계가 매우 다양화 되었다.

충청남도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 자료(2022. 1월 기준)에 따르면, 1117개소로 파악된다.

이중에서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가 참여하며, 돌봄 시간은 정규수업 종료 이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교사가 아니라 별도로 방과 후 돌봄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주로 맞벌이를 하거나 저소득층 가족자녀가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 수요가 있는 모든 수요자가 이용하기는 제한되어 있다. 주요한 이유는 학교의 공간 중에서 1~3개 정도를 돌봄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돌봄수요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내 돌봄 장소 및 돌봄 환경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필요하다. 더불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초등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종일돌봄센터’ 확대도 필요하다. 돌봄 시간도 오후 5시 정도로 운영하므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데리러 가기 위하여

일찍 퇴근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처럼 돌봄 공백시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하는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6개 지자체만이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요청된다.

학교 밖 돌봄 형태인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아동도 이용할 수 있다. 면 지역의 경우, 아동 수 감소현상이 나타나 이용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6471명(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 통계)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 돌봄인력 551명(시설장 238명, 생활복지사 313명)이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보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협동조합(약 30개소)으로 변경되는 추세이며, 경영공시, 이사회 조직, 세무신고 등 투명하게 운영이 공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형태와 어떻게 협력하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과제가 있다

충남 전체 차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의 운영지원, 시군별 특성화 사업 지원, 평가 등을 지원 중간지원조직은 없다.

반면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15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지원, 시군 네트워크 구축, 보건

복지부 평가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 센터 등도 개별 지원체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돌봄 지원 체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충남 아동의 권리 보장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충남형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간, 돌봄 환경, 운영형태, 돌봄 프로그램 등을 살펴보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초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의 처우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첫 임시회 마무리...“여름철 도민 안전 각별히 당부”

제339회 임시회 10개 안건 의결
5분 발언·현안질문 등 정책 제안
제340회 임시회 9월 15일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달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10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의회는 제12대 의회 원구성 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 기간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5분발언을 통해 ▲서산 충청남도 도립박물관 건립 ▲어린이집 급식

지원 차별 개선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공사 필수구간의 인도·자전거도로 확보 ▲지방교육재정 축소 반대 ▲충남 청년 육성과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제언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제안하거나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한 안장현 의원(아산5)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정책 제언’을 했으며,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업무와 정책을 살폈다”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도에서는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며, 도정 및 교육행정을 질문을 필두로 조례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충남도 예산운용 투명성 높인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도의원·예산재정 전문가 19명
위원장에 최진혁 충남대 교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6일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추가 위촉 및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원 7명, 예산·재정 전문가 1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2월 10일까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예산정책과 관련한 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지난달 26일 위촉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결산 분석방향 자문 ▲재정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 ▲예산안 및 정책토론회 개최 등 의회의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장은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김선태 의원(천안10·더

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임됐다. 최진혁 위원장은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겠다”며 “제2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도의회가 도민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도록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정통제권 강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적의 조직 운영방안 찾는다

조직진단 및 운영방안 개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조직진단 및 운영방안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회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간 진행됐다.

최종보고회는 용역사인 (사)한국행정학회 고경훈 이사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광역의회 등 외부 환경 비교 및 내부 수요 등을 분석해 ▲조직 재설계 방안 ▲적정 인력 ▲정책지원관 배치 및 의회직 신설 ▲지방의회 위상강화 방안 등 충남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조직 구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다각화 한다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발족
재난불평등 해소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김선태 의원)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하며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제도를 조사·연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선태 의원(천안10)이 연구모임 대표를,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우수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았고, 정병인(천안8)·김민수(비례)·구형서(천안4)·이지운(비례) 의원과 이제식 충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장, 김희정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장, 김동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실장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교육위원회, 수시모집 진로박람회 참석

지난달 단국대 천안캠퍼스서 개최
“유익한 정보 제공·좋은 성과 기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2023 학년도 충남교육청 수시모집 진로진학 박람회에 참석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천안1)과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 박미옥 의원(비례), 신순옥 의원(비례)이 참석했다.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며, 대학관, 진로진학상담관, 모의면접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진로박람회 개회식에서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관, 특강관, 진로체험관, 교사연수관으로 운영됐다.

충청권 및 수도권 98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별 정보를 소개하고, 입학사정관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교사들이 수시모집 지원전략, 자기소개서 작성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편 위원장은 “진로진학박람회를 통

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진로와 진학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은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각자에게 맞는 유익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잘 습득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반기 정책위원회 출범

입법·정책연구 지원 대안 제시
지방의회 역할·위상 강화 기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의 입법·정책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제12대 전반기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가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첫 번째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했다.

제12대 전반기 정책위원회에는 도의

원 11명을 비롯해 학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 등 모두 20명이 위촉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완식 의원(당진·국민의힘)이, 부위원장은 이인범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사가 선임됐다.

더욱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위 산하에 3개 소위원회도 편성했다. 제1소위원장(기획경제·교육 소관)은 이지운 의원(비례), 제2소위원장(행정문화·복지환경 소관)은 이상근

의원(홍성1), 제3소위원장(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 소관)은 신영호 의원(서천2)이 각각 맡았다.

정책위는 제12대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자치법규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수행한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하여 우리 의회의 의정비전인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에 맞게 행동으로 직접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용소방대 재난현장 대응 강화”

충남도의회,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도내 의용소방대 역할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활성화 연구모임’ (대표 신한철 의원)은 지난 28일 천안동남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의용소방대 업무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했다.

연구모임은 이날 의용소방대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지역별 입대 자원 불균형 해소 및 정예대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

고 향후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기로 했다.

신한철 의원(천안2)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의용소방대에게 확고한 역할을 정립시키고, 재난현장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며 “도내 민간 봉사단체와 비교·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현 의원은 “출동 장비의 보강, 청사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39회 임시회 5분발언

“충남도립박물관 서산에 건립해야”



김옥수 의원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서산1)은 보령·서산·당진·홍성·예산·태안 등 내포 지역에는 역사문화유산과 사료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내포지역 역사문화유산 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할 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산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이자, 불교, 천주교, 유교 등의 종교가 집대성을 이룬 곳”이며 “선사시대 고인돌을 비롯해, 백제문화권 중심의 부장리 고분군, 예천동 유적, 용현리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다양한 유물·유적이 출토됐고,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재정상 사유로 박물관 건립이 계속 우선순위에 배제돼왔는데, 충남도가 박물관 건립을 주요 현안과제로 인식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 개선 요구



김응규 의원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은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보육료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영아 2200원, 유아 2800원(1인당 1일 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유치원의 적정 급식단가 2997원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충남도청 직장어린이집의 단가는 3300원과 충남교육청 어린이집 4500원에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나마 정부 보육료에 충남도가 자체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담보하고,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는 보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더 나은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어린이집 급·간식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대신 자율성 필요”



박정식 의원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은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폭행과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한 국내외 선진국 사례의 차이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정보 접근권이라고 해서 휴대전화 등 학생의 전자 기기 소지를 금지해선 안되는 반면 스위스, 호주,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휴대폰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학생 인권을 경시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수자학생의 권리’에 임신·출산,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타 시·도처럼 ‘차별받지 않을 권리’면 충분한 규정을 충남의 조례는 지나치게 세세하고, 책임과 의무 없는 권리만 담겼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인권조례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뉴욕시 학생관리장전을 보면 ‘자신의 표현은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등의 규정이 담겨 있다”며 “각각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정하는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텍 해양수산캠퍼스 조속히 건립”



신영호 의원
충남의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를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호 의원(서천2)은 해양관광·해양신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인재 양성에도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우리 도는 2026년까지 국비 1566억 원과 지방비 337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 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어 “우리 도가 해양신산업의 메카, 해양 밸리로 성장하리라 확신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해양관광 관련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충남도의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며 “해양신산업은 전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충남이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충남도는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도 619호선 인도 확보해야”



이완식 의원
충남도의회 이완식 의원(당진2)은 당진시 송악읍 기지리에서 한진리를 잇는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공사 필수구간에 인도와 자전거도를 확보해 주민과 학생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도 619호선 9.3km에 이르는 이 구간은 2017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사업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도로는 국가산업단지와 현대제철 등 철강산업단지를 잇는 주요 도로로서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협소한 도로폭으로 사고위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구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포장공사가 결정돼 다행이지만, 필요 부분에 인도와 자전거도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과업구간에는 빠져있지만 송악저수지와 기지시골다리기 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약 2km 구간 도로에 인도가 없어 지역주민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만큼, 이 도로도 필수적으로 인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해야”



이지윤 의원
이지윤 충남도의원(비례)은 충남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 졸업자가 충남에 취업한 비율은 22.1%로, 세 종시를 제외하면 지역내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이며 청년 유출의 원인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은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충남을 떠나는 반면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며 “행정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의 간극을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8기 100일 중점 과제로 충남 소재 기업과 대학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 담겼지만, 특성산업과 대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충남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만큼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썩어버린 금강하구 생태복원 절실”



전익현 의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은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시행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990년 하굿둑이 생겨 갑문을 열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호수가 된 지 벌써 30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강이라 부르던 그곳은 뻘이 돼 썩어가고 있다”며 “갯벌은 육화되고, 수질이 악화됐으며, 어로를 막아 어장 형성이 어렵고, 어선의 항로를 막아 장항항은 이름뿐인 국제무역항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낙동강 하구와 시화호의 선례를 따라 “해수유통 시작을 서둘러야 한다”며 충남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전라북도, 서천군, 군산시, 관련기관, 농어업인 등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태홍 충남도지사의 공약 모두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을 향해 있다”며 “금강하구의 생태복원은 서천뿐 아니라 충남 생태복원의 방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천군수가 정부와 및 도의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해수유통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충남도의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홍성현 의원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을 비판하고, 교육교부금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의 20.79%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돼 유·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며, 각종 인건비·교육환경개선비·학교운영비 등에 사용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고, 교부금 사용처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교부금 사용처를 확대할 경우 유·초·중등학생들의 교육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며 “무상 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방과 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에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재원을 대학에 나눠주는 방식은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라며 “대학교육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거리두기가 가능한 1대1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에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도내 보훈위탁병원 이용 제한적”



방한일 의원
충남도의회는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보훈병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충남지역 보훈대상자 3만 5000여 명과 1000여 보훈가족의 불편함 해소와 예우를 위해 발의됐다. 방 의원은 “충남의 보훈대상자들은 3~4시간 이상을 소요해 서울 또는 대전에 있는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 내 29개 보훈위탁병원은 진료과목이 제한적이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보훈대상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지방보훈병원 건립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충남보훈병원 건립을 외면해 왔다”며 “보훈병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협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에게 대한 마땅한 보상이며 최소한의 배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 의원은 “충남의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보훈정책은 ‘수동’이 아닌 ‘능동’이 되어야 하고 ‘후속조치’가 아닌 ‘선제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경영평가·공정성 확보돼야”

안장현 의원,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법률·조례 따라 완료된 평가 전면재검토”



안장현 의원
민선 8기 김태홍 지사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된 이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장현 의원(아산5)은 2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는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지방출자출연법 제30조에 따르면 경영진단을 실시할 경우 여러 요건이 있으나, 현재 김태홍 지사가 실시할 경영진단이 법률에 의거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경영효율화 용역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일 뿐 평가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적법하게 선임된 경영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부인하는 것은 평가결과 이후 임의로 재평가가 가능해지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ilitary, 평화의 카운티

